

워크숍 3 (최대 인원 20 명)

원불교의 세계 종교와 문화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유지

“Sustaining Peace through Global Interfaith and Intercultural Dialogues in Won Buddhism”

황상원, 최수진, 박도연, 크리스티 장(Christie Chang)/ 번역 장문정

요약문:

세계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발전시키고 고양해 나가야 한다. 세계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과도한 욕심, 분노 그리고 망상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마음 없이는 세계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보시의 마음을 기르고, 원래 본성자리에 눈뜨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세를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간 공동체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영적 수양을 확장, 전파해야 한다.

원불교는 제3대 법사 대산 스님의 가르침과 선견지명에 힘입어 50여년 넘게 종교간 협력 운동 확립을 주창해 왔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유엔과 세계종교들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더 이상적인 세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교간, 그리고 문화간 대화가 미국, 남북한,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사이의 장기적인 평화수립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제안할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대화는 국내 정치혼란과 국제 대리 경쟁을 막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세명의 발표자는 각각 다른 배경에서 종교 간의 대화 경험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워크숍 발표자 약력:

최수진(태국 방콕 원불교): 2014년부터 방콕 원불교 사원 주지. 방콕에 있는 마하출랄롱꼰 대학에서 불교, 언어학 석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불교 대표로서 현 세계불교청년회(The 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Youth) 부회장과 여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도연 (유엔 원불교, 뉴욕교구): 원불교 교무. 2008년부터 맨해튼 원불교 사원에서 성직자와 유엔 원불교 대표 등을 역임하고 있다.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대학의 불교 지도법사이다. 원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내면의 지혜와 자비심을 키워 평화와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승가 (종교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음수행을 통해 일체 상호연결을 깨닫고 종교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여러 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황상원 (한국, 미국 원불교 국제부): 원불교 사제로 미국과 한국의 종교간 단체와 함께 교육과 대화를 통해 평화구축과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필라델피아 원불교 대학원에서 응용 명상학 석사, 한국 원불교 대학원에서 원불교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캄보디아 바탐방병원센터, 필라델피아 저먼타운 노숙인 쉼터, 한국 고봉소년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빈곤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 동서문화센터의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민감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합의 원리로 새로운 접근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티 장 Christie(Yu-ling) Chang: 2009~2013 년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협회회장, 2020 년까지 학술 기획위원으로 활동. 샤카디타 외에 2014~2019 년 국제불교포럼(ILBF) 운영위원장을 맡아 현재 국제불교연맹 <http://www.ibcworld.org>) 8 대 공동대표 중 한 명이다. 언어학자이자 번역가, 교육자로서 2001 년부터 2020 까지 타이페이에서 미국 교환학생재단 (www.ciee.or)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대만에서 올해의 멘토상 (2003 년), 인도에서 불교평화활동가상 (2016 년), 태국 국제 따라(Tara)상 (2017 년), 불교 우수여성상 (태국, 2018 년) 등을 수상했다.